

<공개 질의> 5

2023년 모집 정원 감축에 관하여

지난 2월 10일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대학의 모집 정원을 160명 감축하고 2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하게 이뤄지는 본 <공개 질의>에서는 대학 본부에서 추진 중인 2023학년도 모집 정원 160명 감축이 과연 적절한 규모인지에 관해 질의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배경)

교육부는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021.12.29.)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편성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작년 입시에서 미달이 발생한 대학 : 미달 인원의 90% 이상 감축 권고
 - 우리 대학의 경우 작년에 133명이 미달 되었고, 이의 90%에 해당하는 120명 이상을 필수로 감축해야 함
 - 대학별로 미달 됐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감축 인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이 133명을 감축하는 경우 지원금은 약 1.3억 원임
2. 작년 입시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은 대학 또는 미달 인원의 100% 이상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대학 : 적정규모화 지원금에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대학별로 2023년 모집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2024년과 2025년 입시에 대한 모집 정원 감축 계획은 2022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제출

한번 감축한 인원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감축 인원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정한 감축 인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입시 결과를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당근으로 내건 적정규모화 지원금 때문에 선발 가능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감축하는 것은 대학의 미래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과 자료에 따르면, 정시 최초 등록 마감 시점인 2월 11일의 신입생 충원율은 88.14%로 작년 84.44%보다 3.7%포인트가량 높고, 재작년 신입생 충원율 89.45%보다는 1.31%포인트 낮습니다.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으나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작년보다는 높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2년 2월 21일(추가 모집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진행) 이후 미달 예상인원이 구체화 된 시점에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제적 감축으로 연계 되는 인센티브에 비해 손실이 훨씬 클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교육부의 권고에 맞춘 120명 감축이 훨씬 합리적 선택입니다. 160명 감축, 즉 4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을 400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재정 손실 규모는 처음 3년 누적 금액이 9.6억 원이고, 4년 차 이후부터는 매년 6.4억 원 정도씩 지속해서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5-1) 교육부는 대학별로 작년 미달 인원에서 최소 90% 이상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년 미달 인원이 133명인 우리 대학은 최소 120명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대학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의 감축 최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감축 최소 인원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5-2) 이번에 감축하는 인원은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학의 적정한 모집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2월 21일에 마무리되는 정시 모집 결과를 예년의 자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미달 인원의 예상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해 입시 결과를 보고 감축 인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5-3) 대학에서 준비한 탄력정원제, 교육부가 제시한 3년간의 감축 인원 배분, 모집 유보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감축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본부가 검토했던 감축 전략과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 조정과 모집 정원 감축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본 <공개 질의>를 통해 모집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논의되고 공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2.02.1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